

### “장애인들 영혼에 佛心 지퍼야죠”

#### ‘바라밀展’ 100일기도 회향한 랑승만 시인

불교인 랑승만이 제2회 바라밀전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100일기도를 지난 20일 회향했다.



그러나 전시할 작품은 마련됐으나 표구비와 전시장 대관료 등 1천여만원이 없어 안타까워 하고 있다.

#### 문화원 설립 위한 전시자금 턱없이 부족

는 장애인이다”며 장애인들의 뜻있는 재능의지를 설명했다.

바라밀전을 위해 랑승만은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시서화 90여점을 비롯 성원스님의 불경병풍, 석주 중광 수안 설봉스님의 글씨와 선화 도자기 그리고 좌산 정순일, 남곡 김인홍, 월강 강남주선생 등 내로라 하는 예인들의 작품 180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모두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장애인 불교정신문화원 설립을 위해 쓰여진다. 문화원에는 법당과 미술실 글자교실 등이 들어서며, 장애인들의 작품을 발표할 정기간행물 발간계획도 포함돼 있다.

랑승만은 “장애인들의 맑은 영혼에 꺼지지 않는 불심을 심어주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제방의 불자들의 자비담치는 인연의 손길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이라며 불자들의 자비의 손길을 당부했다.

정성은 기자



#### 불교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교육

제1기 자원봉사관리자 양성 교육이 지난 23일~25일 총무원 문화교육관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에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불교간병인회 등 기존 봉사단체회원들과 자원봉



#### 해한경 세미나를 개최한다.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 공동대표로서 지난 25일 서울 합천호텔 지리산룸에서 이흥주총리를 초청, 조찬모임을 가졌다.

#### ‘오늘을 사는 지혜’ 법문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은 9월12일 오후4시 동국대 정각회실에서 ‘오늘을 사는 지혜’란 주제로 법문한다.

#### 국회 정각회서 설법

설정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오는 30일 정오 국회 정각회 법회에서 설법한다.

#### ‘삼품 참사’ 자원 봉사자 위로

동광스님(자비의 집 회장)은 30일 미아동 자비의 집에서 삼품 백화점 참사 ‘자원봉사자 위로 모임’을 개최한다.

#### ‘청소년 유해환경’ 세미나

선일스님(청교련 인천지부장)은 오는 31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청소년유

#### ‘일제잔재 청산...’ 학술 발표

한상범교수(교수불자연합회)는 29일 성곡관 대명문화관에서 열리는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주최 ‘일제잔재와 친일문제’ 학술회의에서 ‘일제잔재의 청산과 그 범리론’을 발표한다.

#### 연변 아동문학세미나 참석

신현득씨(아동문학가)는 지난 7일 연변 한겨레 아동문학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배달겨레 전래동요의 영민성’ ‘개작 전래동요’ 등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9일~20일 한국아동문학인회가 주최한 ‘21세기의 아동문학’ 여름 세미나에도 참가했다.

#### ‘토지’ 서사음악극 공연

김영동씨(국악인)는 박정희씨의 대하소설 ‘토지’를 서사음악극으로 창작 9월5일 오후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을 갖는다.

#### ‘게시판’

▲성준따뚜기 교육=자비의 전화(회장 정덕)는 9월 4일~26일 자비의 전화 강의실에서 성준따뚜기 교육을 실시한다. (02)737-7378

#### ‘가난이 죄는 아닐진대 나에겐 죄가 되어 죽습니다1·2’

▲이침경반 개설=청계사 영등포 포교원(원장 현조)은 4개월과정의 아함경반 개설, 주간반은 9월11일부터, 강의는 매주 월·화 오전11시, 야간반은 9월13일부터, 매주 수·목 오후7시30분부터. (02)636-1713, 676-2279

#### ▲기초교리 강좌=백련사 포교원(원장 박지상스님)은 9월5일부터 3개월과정 제4기 불교기초교리강좌 개설, 강의는 매

#### ▲신앙심화 강좌=무설정사(주지 혜경)는 법화경강좌 제1기 생 연구반 30명, 통신반 약간 명을 모집한다. 기간은 9월3일부터 6개월간, 강의는 매주 일요일 오후1시부터. (02)983-0198

#### ▲신입생 모집=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은 청년 및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053)474-8228

#### ▲사진회원 모집=부산불교TV 사진자회(회장 옥명수)는



#### 호국 선봉사 연합회 낙성법회

3군사령부 군법당 호국 선봉사(법사 정진진) 연합회 낙성법회가 지난 5일 봉행됐다. 지장·신중행화 점안식을 겸한 이날 낙성에는 소림불교아카데미 원장 지형스님과 3군



#### ‘95 여름 서울 청소년자원봉사 종료식

95여름 서울 청소년 자원봉사 종료식이 지난 20일 총무원 회관에서 열려 1백52명의 청소년 자원봉사자에게 활동 인정서가 수여됐다.

#### 부산불교지도자 수련대회

류진수회장(부산불교신도회)은 지난 26일~27일까지 포충사에서 ‘부산불교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가졌다.

####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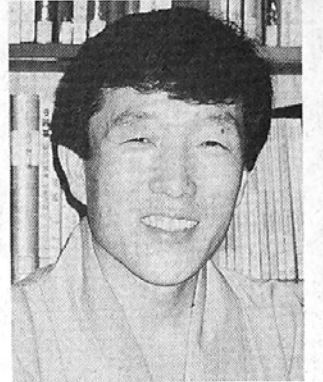
◇동국대 신규임용 교수 △성본스님(경주캠퍼스 불교학과) △박윤희(영문학) △오태석(중문학) △양기주(전산통계학과) △김홍호(신문방송학과) △송일호(경제학과) △김용(전기공학과) △고진호(교육학과) △권동희(지리교육과) △신혜원(가정교육과) △이충기(관광경영학과) △김준기·김종대(한의학과) △김영규·강영모(의학과) △김익현·우창조(경영학과) △김진선(회계학과)

#### 부산=박명근 기자

### 내일을 여는 불자

부산불교교육원장

정재도 씨



### “불법·세속법 따로 없지요”

#### ‘참불자 운동’ 확산 위한 세미나도 준비

성재도 원장(39, 법명 一道)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말을 걸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쌀쌀한 느낌을 받는다. 결코 살집이 많지 않은 몸과 얼굴에서 풍기는 날카로운 인상이 그런 느낌을 더욱 부추긴다. 그의 이런 인상은 성원장의 불교계를 바라보는 예리한 시각으로 나타난다.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제가 원하는 것은 참다운 불자가 많이 나와 진정한 불교도가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이 체계적인 불자교육입니다.” 성원장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불교교육원의 입문자 교육에서 수행반 교육, 여래사 교육 등이 수행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찰 방문이나 예배 때만 수동적 불자가 되는 타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 전체가 항상 부처님 가르침으로 충만하게 되는 데 있다. 불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행태를 보면 속된 표현으로 ‘불법 따로 세속법 따로’여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불교의 앞날이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는 요즘 절망의 한켠에서 소중환 희망의 새싹을 트게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불교입문한 지가 올해로 19년째, 특히 부산불교교육원을 운영한 지는 7년이 넘고 있으나 그동안 교육원 총재인 대성스님(김해 은하사 주지, 부총재인 영규스님(영동 신홍사) 등으로부터 한층의 재정 지원도 받지 않고 있다. 성원장의 ‘재정은 많은 적든 결국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 때문이다.

앞서 밝힌 교육원의 교육 커리큘럼을 공의 ‘신행혁신 운동’ 또는 ‘참불자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원장은 이를 모범적인 신행조직의 모범을 창출하는 기회로 꾸려나갈 것이라 한다. 그는 또 빠른 시일안으로 불교 신행생활의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박명근 기자



#### 95청소년 자원봉사 우수상 이승연 양

을 불교활동을 시작해 현재 정불사 학생법회 회원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법당을 찾는 신심 돈독한 청소년불자다. 이번 청소년 자원봉사지도법사 사기순선생님의 권유로 정불사화상법회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 5일간 상계

#### 매달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 방문 국교 2년때부터 절에 다닌 ‘청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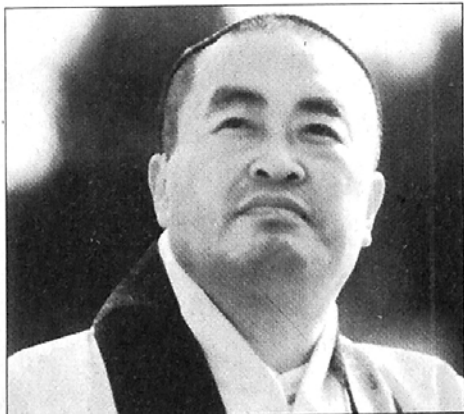
“함께 봉사한 친구들과 함께 매달 1번씩 서울시립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라고 말하는 이승연양(용화여고 2학년). 지난 1일~10일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 실시된 95청소년 자원봉사에서 우수사례상을 수상한 장본인이다. 국민학교 2학년때부터 상계동 정불사 어린이법회에서 처

동 서울 시립요양원에서 활동을 펼쳤다. “자원봉사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에요”라고 말하는 이승연양은 “자본 아니라 봉사에 참가한 모든 친구들이 봉사하며 내일을 여는 참된 의미로 되새긴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자 기자

# “마음의 심터를 찾는 그대에게 三中스님이 전하는 참인생의 지혜”

### 백만 독자가 확인한 감동의 책



행동하는 부처 三中 스님! “교도소는 나의 수행처요, 사형수들은 나의 스승이다” 출고 가난한 이웃을 열면 항상 그가 있습니다. 사형수, 무기수, 니한자, 소년소녀가장, 귀부님, 코부님들의 영혼들. 사형당한 자식의 시신을 안고 우는 사형수의 어머니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자비의 부처님 말씀과 어렵게 어렵게 모은 영지금을 가지고 오시는 사형수의 대부 삼중스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곁에 살아 행동하는 부처입니다.

#### 어머님이 편지를 받으실 시간이면 죄 많은 불초소생은 저승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극도로 어지러우니 사형수인 저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이승에서의 마지막 편지를 적어보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들이 할참 밖으로 피우는 참회의 편지 최초 공개!

####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1·2

제1부 참회의 눈물로 보낸 나날들 제2부 어머니 전 상서 \*신국민 / 322면 / 2권 2,550원

정해져 있는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모두 성자였습니다

“사랑, 미움, 슬픔이 떠난 자리에 나는 언제쯤 도탄할 수 있을까요? 묻는 이는 사형수의 편지에서 나는 문득 ‘그가 곧 부처’임을 느낄 수 있다. 삼중 스님의 책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가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형 제도를 다시 생각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민우당 국회위원 李哲

#### “나는 다시 한번 살고 싶다!” 절망, 통곡, 그리고 성자가 된 사형수들의 눈물로 얼룩진 秘話

130인의 사형수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

#### 가난이 죄는 아닐진대 나에겐 죄가 되어 죽습니다 1·2

\*신국민 / 322면 / 2권 2,550원

#### 사형수 어머니들이 부르는 통곡의 노래 1, 2, 3 권

1. 내 죽거든 배에 깔을 빌라 꺼까지 법으로 부러주오 2.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내 아들이, 이 예미 젖 한번 먹고 가려우나 3. 가난이 죽인 불쌍한 내 자식이 마지막 사형수이길 빌나

\*신국민 / 323면 / 2권 2,550원

#### 지렁이도 기어 극락으로 가는데, 인간은 어찌 지옥으로 가려 하는가?

고달픈 인생길에서 한뼘쯤은 폭 쉬고 싶을 때 이 선사들의 계승은 우리로 하여금 흐르는 물에 발을 씻은 듯, 아침이슬을 털어마신 듯한 산뜻함과 여전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부처를 만난 듯한 지혜를 주며, 우리의 마음에 선심(善心)을 불러일으키는 즐거움을 준다. \*신국민 / 360면 / 2권 6,000원

100인의 선사들이 남기고 간 삶의 지혜

#### 몸 둘 곳은 있어도 마음 머물 곳은 없어라

4월 23일 1995년 8월 30일

라이프잡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4가 36 대표전화 927-2831 팩스 924-3236